

‘카운트다운’ Follow me!

2023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장충체육관

대학청년부가 주최하는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2026 카운트다운)’이 ‘나를 따르라’(마 16:24)를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동호로 241)에서 열린다. ‘예배의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비전으로 삼은 청년들이 다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6 카운트다운에서는 6월 19일(금)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CALL 부르심’, 20일

(토)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OBEY 순종’,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UNITY 연합’,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NATIONS 열방’, 21일(일)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TURN 회심’, 양승훈 선교사(불어권 선교회) ‘DONE 완성’, 이재훈 위임목사 ‘WIN 승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찬양과 특순, 합심기도, 결신 등의 순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카운트다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QR코드 참고). 회비는 3만 원(일요주일 연합예배는 무료). 참가신청을 한 다음 카운트

다운 홈페이지 ‘My Page’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접수에 필요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식지 않고 더욱 뜨겁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초대교회의 예배 열정과 복음을 향한 사명을 회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을 카운트다운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은 2011년 시작된 집회다. 청년들의 영적 부흥과 선교 헌신을 목표로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월 17~18일
‘714연합기도대성회’

714연합기도대성회(이하 714기도회)가 오는 7월 17일(금)과 18일(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막 오른다.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사 62:6)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500개 한국 교회 2만 여 성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714기도회에서는 7월 17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17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유기성 목사(위지엠) 환영,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이인호 목사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김도훈 목사(신림동산교회),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18일에는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환영,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재훈 목사,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말씀, 이요한 목사(수원순복음교회), 류성룡 목사(홀어진화평교회), 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남경우 목사(GMTC),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714연합기도운동 홈페이지(www.714praymov.org) 또는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868-8425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

아웃리치 발대식
6월 24일 오후 7시 30분

2000선교본부가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6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6 아웃리치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아웃리치를 위한 중보기도, 아웃리치 지침 및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아웃리치 참가자 및 공동체 리더십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아웃리치 팀장이 대표로 6월 17일(수)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가로 형태 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박지혜 기자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

국내 온누리교회 및 해외 비전교회 3,078명 참석

2026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가 막을 내렸다.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이어진 집회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및 해외 비전교회에서 마리아 3,078명이 참석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다<관련 기사 4-5면>.

2026 마리아행전에서는 10일(수)과 11일(목) 양재온누리교회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 본당에 송출했다. 12일에는 양재 사랑홀에서 다함께 모여 연합 기도회를 했다.

첫째 날(10일)에는 송정미 사모 특순, 조호영 목사 오프닝 메시지,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기도회 등을 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찬양, 정

명호 목사(해성교회) 설교, 기도회 등을 했다. 셋째 날(12일)에는 찬양,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설교, 기도회, 세리모니 등을 했다.

강민정 성도(도곡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깊은 곳에 자리한 죄와 연약함부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소망했다.

마리아행전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기도부흥운동’이다. 지난 2010년 시작해서 올해 17번째 집회를 열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6월 비전헌금,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후원

6월 13~14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올해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는 ‘Follow’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아웃리치 78개 지역 138개 팀 2,493명, 해외 아웃리치 24개국 59개 팀 959명이 참가할 예정이다(6월 10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 팀은 전국에서 여름성경학교와 어르신사역 및 지역교회 섬김을, 해외 아웃리치 팀은 아시아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현지 선교사를 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올 예정이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나를 따르라 (4)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

출애굽기 33:12~23

기도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혹은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자녀, 사업과 관계의 문제 등 모든 기도제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기도제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제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갈망

모세가 있는 자리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제자 됨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시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그분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영혼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증거를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갈망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새에 두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 그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위 틈새에서 모세가 보았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갈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함께 가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

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출 33:3).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있으니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보면 그 갈망이 한 단계씩 깊어집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한 단계씩 깊어집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친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Panim), 얼굴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내 얼굴이 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와 함께’라는 표현은 해석을 돕기 위해 덧붙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를 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를 부르셨기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분석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15~16절).

모세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약속의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받아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이 더 귀하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의 진노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와 중보에 응답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기도제목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18절).

모세는 이미 임재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마음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야 할 갈망은 그분을 더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제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제자도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로 먼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깊이 추구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궁극적으로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Kabod)’인데, ‘무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묵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무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통치되는 무게, 하나님 자체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모세는 달랐습니다. 흉장난에 머무르지 않고 바다 자체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광에 대한 욕망,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선택 기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실체는 선함입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네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19절).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구했는데 선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을 무서운 빛으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빛,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빛,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빛입니다. 이방 신들의 임재는 그저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은 무엇입니까? 선함이 발견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선함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하

님 영광의 실체는 선함입니다.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얼굴이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정반대로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내 얼굴이 가리라”라고 하셨는데, 20절에서는 “그 얼굴은 볼 수 없다, 보게 되면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얼굴, 기꺼이 보여주시는 얼굴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얼굴이 보게 되면 죽는 얼굴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므로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낮추심, ‘어코모데이션’(Accommod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른이 아기들과 대화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갈망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안전하게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21~23절).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되, 그 영광을 보고 죽지 않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새에 모세를 두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복음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위틈에 숨겨주셨고, 그 손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바위틈은 우리가 그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존재,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된 찬송가 가운데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반석은 바위를 뜻합니다. 바위가 열려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찬송 가사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는 오늘 본문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갈라지고 열린 반석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고후 4:6).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

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요 1:14).

모세가 보기를 갈망했지만, 뒷모습만 보았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닫혀 있던 그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리며 “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위틈에 숨어서 손바닥에 가린 채 보았지만, 우리는 바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고후 3:18).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도 주셨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영광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모세는 바위 틈새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바위 틈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뒷모습만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교회, 민족과 세상을 위한 왕의 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요 17:1a).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마리아들이 바로 그 왕의 기도를 따라, 나와 교회, 민족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첫째 날, 자신을 위한 왕의 기도

6월 10일(수) 오전 9시 4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마리아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윽고 예배당이 그녀들의 기도로 채워졌다.

오전 10시, 집회가 시작됐다. Blossom 챔버의 연주와 찬양이 울려 퍼졌다. 송정미 사모의 특순이 끝나고,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가 단상에 올랐다.

“내 욕심과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배워보십시오.”

첫째 날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왕의 기도’(요 17:1~5)를 주제로 했다. 기도회는 김정희 목사(양재 여성사역)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인도했다.

둘째 날, 교회를 위한 왕의 기도

마리아행전 둘째 날 집회는 The Blessing 챔버의 연주와 찬양, 기도로 시작됐다. 설교는 정명호 목사(혜성교회)가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요 17:6~19)를 주제로 했다. 마리아들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다. 둘째 날 기도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현실 목사(부천 여성사역)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인도했다. 말씀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진리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짖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도 이어졌다. 이윤재 목사(수원 여성사역)가 ‘정치, 법, 사회를 위한 기도’를, 김미정 목사(인천 여성사역)가 ‘교육,

문화, 미디어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인도했다.

셋째 날, 세상을 위한 왕의 기도

집회 마지막 날,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마리아들이 모였다. 설교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가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요 17:20~26)를 주제로 했다. 기도회는 배순양 목사(제주 여성사역) ‘북한, 통일을 위한 기도’, 권오향 목사(남양주 여성사역) ‘열방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인도했다. 백미는 세리머니였다. 마리아들이 서로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손을 맞잡고 축복했다. /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기자



인터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평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계락을 분별할 지혜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제 안의 우상도 돌아봤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며, 마지막 시대 성도에게 순교적 신앙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배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승진 집사
(강남B공동체)

“무너진 곳을 세우는 중보자”

평소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점점 악해질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채 마리아행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내 기도가 작아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됐습니다. 특히 “무너진 곳을 세우는 중보자”라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군

대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육, 미디어, 정치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포함해서 하루 한 시간은 기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기도할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 세속화되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다음세대 위해 더 깊이 무릎 꿇겠습니다.



박진영 집사
(이수공동체)

6월 10일(수)

왕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리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이드라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기도는 너무 깊어서 누구도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언제입니까?”를 묻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때입니다”라며 알람을 켜듯 아버지께 알려 드리는 친밀함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수

님 공생애 클라이맥스는 수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내려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하심으로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영

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주어집니다.

오늘 왕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첫마디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둘째, 만민을 다스리는 왕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우상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통치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에 우리는 작고 영향력 없는 무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기에 민족의 앞날도, 열방의 앞날도 못 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셋째,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영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왕의 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축복이 모든 마리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재훈 위임목사

6월 11일(목)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6~19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 다락방과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던 겔세마네의 기도 사이에 하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과 성경의 한 본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알리신 다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낸대’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처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자 예수님의 것으로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자리를 지키며,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쁨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을 말합니다(요 17:13). 예수님

의 기쁨은 외부 상황이나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없더라도,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셋째, ‘거룩과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는 노래 부를 때도, 설교할 때도 쓰입니다. 마이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마이크의 용도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십자가 구속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들입니다. 구별됨에 맞는 삶을 살려는 것은 실천적 거룩의 노력입니다. 거룩함의 실천적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행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쁨과 거룩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집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거룩한 보존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명호 목사
(흥성교회)

6월 12일(금)

아버지, 하나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0~26절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환란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떤 유혹이 와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간절한 간구인 동시에 확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됨을 강조하셨습니다(21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이 우리와 함께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공동체의 하나 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의 공동체도 하나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 참된 복음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해질 때 하나 되는 일을 이루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 됨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신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인가?

대화 중에 누군가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첫째,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사이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한 연결이 있다.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두 하나님(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그 기원을 둔다. 현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적이지만,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구별된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 거의 2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많은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홀로코스트 이후인 1948년에 이르러서야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다. 그것은 구약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래 있는 신정국가나 다윗 시대와 같은 군주국이 아니다.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였다.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 사이

에 있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연결은 유대인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유지해 온 정체성과 고유성이다. 20세기 이스라엘로 물려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다. ‘유대인’은 실제적이고 오래된 민족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에 유대 민족이 다시 세워진 것은 기념비적인 역사적 성취이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의 성취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어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인류 역사의 계획에서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세속적 지도자들의 정책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브라함과 민족적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고 이해한다. 이 견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떤 지상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충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혼합된 무리이다.

두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구원이 오직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발견되며,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와 구별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가의 외교 정책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 정의와 지혜로운 외교 위에 세워져야 한다. 어떤 정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 내거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미국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동맹국이며, 특히 세계의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과 정치적 요구를 침해할 때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와 자기 고항을 방어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겪어 온 중상, 학대, 집단학살적 공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 역사,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성경에 계시가 된 정의의 원칙을 따르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사이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한 연결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의 성취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국가의 외교 정책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 정의와 지혜로운 외교 위에 세워져야 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래한 세상(2)

강단과 교실에서 빼앗기는 복음의 자유



노지준 장로
(온소망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서울의 한 교회 목사가 주일설교 중에 <로마서> 1장 24~27절을 본문으로 성경적 성 윤리를 선포한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설교가 이루어진다.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며칠

뒤 성소수자 단체로부터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이것이 허구적 시나리오에 그칠까?

2019년 독일 브레멘의 성 마르티니 교회의 복음주의 목사 ‘올라프 라첼’은 약 3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세미나에서 동성애를 “우리의 전체 문명과 문화를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쿼어 축제의 일종인 베를린 프라이드 행진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사탄적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맞물려 성 마르티니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물 파괴, 페인트 테러 및 협박을 당해온 했다. 결혼 세미나는 유튜브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어 올라프 라첼 목사는 혐오 표현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0년 브레멘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하루 8,100유로(한화 약 1,4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항소심에서는 올라프 목사의 발언은 종교적 자유의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다시 항소했다. 결국 올라

프 목사가 쿼어 지원센터에 5,000유로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최종 합의 종결되었다.

또 다른 사건은 핀란드에서 벌어졌다. 핀란드 국회의원이자 전 내무부 장관 ‘퍼이비 러서넨’은 2019년 자신이 속한 루터교회가 헬싱키 프라이드 행사(대규모 쿼어 축제 및 행진)를 후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소셜미디어에 <로마서> 1장 24~27절(동성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통렬한 지적)을 게시했다. 이 트윗으로 러서넨은 ‘증오 표현 선동’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2022년 지방법원은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하며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23년 항소법원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은 2026년 3월 3대 2로 러서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년 전 출판한 성경적 결혼관을 담은 교회 소책자에 동성애를 발달 장애로 묘사하는 내용이 ‘집단을 모욕하는 텍스트’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 구절에 대한 러서넨의 해석과 의견이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때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살아 숨 쉬던 나라는 성경을 믿는 대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로 변모했다. 러서넨은 선고 직후 “나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지지하며, 공적 영역에서 신념을 나눌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를 예정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영국 트렌트 칼리지의 교목이었던 ‘버나드 랜들’ 목사는 학교가 도입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chapel 설교에서 “학생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새로운 성 윤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선포했다. 학교의 대응은 경악스러웠다. 그를 영국의 대테러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벤트’에 신고했다. 한 목회자의 성경적 설교가 국가의 ‘테러 위협 요소’와 동일하게 취급된 것이다. 결국 랜들 목사는 해고되었고, 2023년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충격적이게도 법원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 보호’를 위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것인가? LGBT 파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LGBT에 대한 성경적 입장에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것인가? LGBT에 대한 성경적 입장의 설교가 테러에 준할 만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가?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심리적 복지가 교목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된다는 논리였다.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다음세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세운 기독교 사학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 진리를 가르칠 권리를 통째로 빼앗기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대안학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의 교목은 성경적 성 윤리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젠더

교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교목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가르쳤다가는 ‘차별 교육, 혐오 교육’으로 고발당하는 날이 눈앞에 있다.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를 다룬 의학적 연구 발표가 ‘혐오 조장’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날이 올 수 있다. 교회가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을 위한 예배당 대관과 목사의 주례를 거부했다가 ‘서비스 차별’로 법정에서는 날이 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되고 있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 커플의 결혼식 대관을 거부해 교회가 1,000만 원(예시적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서 또 다른 동성 커플의 결혼식 대관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반복해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법은 횡수에 한도 없이 반복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 단체의 줄을 잇는 기획 소송에 의해 교회가 단순히 동성애자의 결혼식 대관 거부로 파산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극적인 해외의 사례들이 내일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이 파도에 맞서야 한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돕는 치유자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의 손과 발을 옥죄는 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진리를 허무는 악법의 입법 시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어느 누가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앞에서 본 사례들이 어느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가 있을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온누리 IN2 콘퍼런스의 의미 그리고 역할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한 교회가 세계 선교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귀한 모델입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가 비서구권 교

회 지도자들에게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과 사역을 공유했다. 비서구권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역팀 리더십,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는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를 주제로 지난 5월 19일(화)부터 24일(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에서 열렸다.

5월 19일(화)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요단강 건너기’ (수 3:17) 말씀,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Acts29 비전과 사역’ 강의 등을 했다. 5월 20일(수)에는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맞춤전도’, 배행삼 목사(2000선교) ‘온누리양육체계와 성도의 여정’, 이재훈 위임목사 ‘Movement인가? Monument인가?’ 강의, 대학청년부 1인극 공연, 순예배 시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선교가 교회의 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 교회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원동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월 21일(목)에는 양성민 목사(양육사역본부) ‘QT’, 허복만 장로(부천온누리교회) ‘일대 일제자양육’, 김재석 목사(가정사역본부장) ‘가정사역’ 강의 등을 했다. 5월 22일(금)에는 권은영 목사(NGO더멋진세상) ‘NGO더멋진 세상’,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BEE사역’ 강의, 자유 토론 등을 했다. 5월 23일(토)에는 국가별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국립박물관 등지를 방문했다. 5월 24일(일)에는 SNS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렸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다시 확인하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연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참가자 간증

하나님이 맡기신 지상명령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 2026 IN2 콘퍼런스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참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콘퍼런스 첫날, 메인 스크린에 비친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선교적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차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다

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득 ‘어떻게 온누리교회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깊이 심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선교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명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12가정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성

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건강한 교회의 토대를 세워 왔고, 청사진을 단계적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강의를 듣고, 선교사와 장로, 소그룹 리더, 그리고 우리를 환대해 준 성도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복음과 선교를 향한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회가 단순히 모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었습니다. 모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꺼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

하시는 곳으로 파송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으로 가득 차, 이 시대 가운데 밝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송 집사
(말레이시아 쿠칭
시 트리니티 감리
교회 선교위원회)

‘Act29 비전’에 초대받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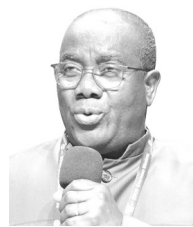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영적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리더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故 하용조 목사님께 주신 Acts29 비전이 온 교회에 선교적 열정을 일으켰고, 그 비전이 오늘까지 이어져 수많은 성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

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일대일제자양육과 큐티 사역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점 역시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세계 선교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 귀한 모델입니다. 이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역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9년 비타민C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교대학원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에 비서구권 지도자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나라와 선교지로 돌아가 이곳에서 받은 비전과 도전을 나눈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 온누리 IN2 콘퍼런스를 통해서 열방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Acts29 비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모두가 선교지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마리에
쿵데 목사
(코트디부아르
AOG교단 총회장)

선교는 말이 아니라 실천

한국에 머무는 동안 故 하용조 목사님의 묘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용조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몽골의 청기즈칸 왕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몽골의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30km 떨어진 지역을 찾아가 적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지만, 도로 사정이 열악한 몽골에서는 험한 길을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그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참가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들을 각자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장발스랭 목사
(몽골 Kingdom
Family Network
대표 목사)

목사가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

인돈 선교사의 용기, 희망, 끈기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William Alderman Linton, 한국명 인돈(印敦). 그는 1912년 스무 살을 갓 넘긴 나이에 한국 땅에 첫발을 디뎠다. 그리고 48년 동안 이어진 그의 헌신은 단순한 종교적 봉사를 넘어 한국 근대 교육 및

사회 재건 역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의 일생은 식민 지배, 전쟁, 폐허라는 절망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결같이 용기(Courage), 희망(Hope), 끈기(Perseverance)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증명해 보였다.

용기, 믿음을 쫓는 결단

인돈 선교사의 용기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진실을 증언하는 도덕적 용기에서 빛을 발했다. 3·1운동 당시, 그는 미국에서 안식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탄압받는 한국 민족의 독립 의지를 외면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을 바탕으로 미국 언론에 글을 기고해서 국제 사회에 한국인의 고통과 자유를 향한 염원을 알리는 증인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침묵을 택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향해 외치는’ 양심의 행동이었다.

이 용기는 신사참배 강요라는 더 큰 시련 앞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사참배는 당시 한국 교회와 교육기관에 가해진 최대의 압박이었다. 인돈 선교사는 학교의 존속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

를 뒤로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따라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 결과는 학교 폐쇄와 학생들과 슬픈 이별이었다. 이 결단은 물질적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큰 가치임을 보여주는 숭고한 희생이었다. 그의 용기는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에 충실한 성도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희망, 믿음 위에 선 교육

인돈 선교사가 보여준 두 번째 가치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대전에서 대다수가 절망의 한숨을 쉬 때, 그는 무너진 건물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읽어냈다. 그는 희망이 구호품이나 재정적 지원만으로 채워질 수 없으며, 교육을 통해, 믿음 위에 선 교육을 통해 힘을 길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재건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인돈이 말하는 교육은 세상과 달랐다. 학생들은 학과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으며 동시에 매일 경건의 시간과 함께 일과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 시간은 교수와 강사들이 인도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매주 목요일 예배를 드렸고, 학생들은 이에 부응해 주일이 되면 가까운 지역에 교회학교를 열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성과까지 일궈냈다. 적은 학생 수로 시작한 학교이지만, 믿음 안에서 실력을 키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된 기관이 되었다. 이 수고의 결실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쌓고, 탁월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훈련된 학생들이 어떻게 교회와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지 한

국 사회에 보여주었다.

끈기, 48년이 증명한 사랑

인돈 선교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세 번째 이자 가장 강력한 가치는 끈기다. 긴 시간 속에서 증명된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1912년부터 1960년까지 48년 동안 그는 일제강점기의 억압, 태평양전쟁 시기의 추방,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많은 외국인이 떠나갔던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그는 처음의 약속을 굳게 지켰다. 그의 끈기는 하루하루 작은 벽돌을 쌓아 올리는 꾸준함이었으며, 수많은 시련에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학교를 세우리라’는 믿음으로 재건을 이끌어냈다.

인돈 선교사의 48년은 한국 민족을 향한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의무가 아닌, 지속적인 헌신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끈기는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인내하고,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신시켜 준다. 인돈 선교사의 삶은 한국 근대사라는 격랑 속에서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용기, 희망, 끈기의 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있는 증인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교육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은 선구자였다. 이 모든 과정을 48년 동안 완성한 끈기의 실천가였다.

이 시대 차세대들 역시 인돈 선교사처럼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믿음을 쫓는 용기를 가지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만든 희망을 기대하고, 자신의 소명을 향해 끈기 있게 걸어가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글: 그림 명난희

102. 누룩



성경 QUIZ



1. 바울은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놀라운 일을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고전 13:1-2).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믿음 ② 소망 ③ 사랑 ④ 이해

2. 말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고전 13:4, 개역개정).

① 온유, 시기, 자랑, 교만
② 절제, 시기, 사랑, 교만
③ 온유, 질투, 사랑, 이해
④ 이해, 시기, 자랑, 교만

3.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것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고전 13:6).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말씀 ② 진리 ③ 감사 ④ 온유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온누리 독후감 대회 수상작

선함을 전하는 사람!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저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들려주기 위해 쓴 글이라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삶이 단순히 기적이나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디킨스는 예수가 악한 사람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특히 힘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주기도 한다. 그 상처가 서운함이 되어 끝내 마음의 문

을 닫아버릴 때가 많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며, 다시 용서의 손을 내미신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함과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인 동시에 나 자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킨스는 이 글에서 교리나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강조하기보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신 삶의 태도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전한다.

또 이 책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친절과 용서를 나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한다. 하나 더 마음에 남는 것은 선함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큰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큰 무언가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언제나 선을 행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설령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이 책에서 받은 감동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선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유수아 학생
(서빙고 파워웨이브)

■ 연재 순서 1. ‘돈’은 과연 축복인가? 2.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 3. 투자인가, 투기인가? 4.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

투자인가, 투기인가?

조급함을 이기는 ‘성경적 투자’



오종규 성도
(前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장, 법무사)

앞서 우리는 돈이 가진 영적 권세인 맘몬이 존재하고, 빚 권하는 사회 속에서 자족함으로 돈에 대한 주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뜨거운 전장터이자, 청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 바로 ‘투자’의 영역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인이 무슨 투자냐, 자족하며 성실히 땀 흘려 버는 돈 외에 자산 증식을 노리는 것은 탐욕”이라며 투자 행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정당한 노동이 배제된 채 돈이 돈을 낳는 불로소득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도저히 투자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가혹한 현실이 있다. 눈만 뜨면 치솟는 물가와 자산 가격 속에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감도 있다.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자산을 방치하는 게으름인가?”라는 청년들의 부르짖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은 ‘조급함’이라는 강력한 전염병에 걸려 있다.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은 연일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으로 수익 원을 벌었다는 이른바 ‘대박 스토리’를 쏟아낸다. 이 속에서 현대인들은 격렬한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즉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린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남들 다 주식으로 자산 불릴 때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압박감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현장으로 등 떠민다.

그러나 이 조급함의 끝은 어디인가? 시장의 그래프가 흔들릴 때마다 일상이 마비되고, 밤잠을 설치며, 주식 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영적 결박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양극단의 시선 사이에서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투자를 절대 받을 들이지 말아야 할 맘몬의 덫으로 여겨야 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뛰어 들어야 하는 생존 경쟁일까? 오늘은 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죄나 무비판적인 수용을 넘어, ‘투자인가, 투기인가’를 성경의 거울 앞에 비춰 정직하게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투자의 관점을 세우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이 투자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투자를 죄악시키는 일부 기독교적 시각을 넘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당한 투자와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자산의 가치 보존’이라는 소극적 청지기 의무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는 인플레이션(화폐 가치 하락)이다. 과거에는 성실한 노동과 저축만으로도 재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압도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즉, 이제는 단순히 몸으로 일해서 버는 소득을 넘어,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자본소득(투자)’이 자산을 지키고 키워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맡겨진 물질의 가치가 허무하게 녹아내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리하고

‘청지기적 실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

셋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기독교인이 ‘반드시’ 투자해야만 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투자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며, 자본소득을 벌어들여야만 앞서 언급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적은 급여와 소득에 진심으로 만족하며,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족의 영성’은 그 자체로 이미 성경이 지지하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다. 돈을 더 불리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자본소득이 없다고 해서 청지기적 삶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를 단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심’으로만 치부하며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투자가 미래에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나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나와 가정을 보호하려는 ‘지혜로운 준비’가 될 수 있다. 또한 나 혼자만의 만족을 넘어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 이웃과 교회를 더 풍성히 섬기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부유함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재물을 다스리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일터에서의 ‘탁월함’은 순식간에 맘몬을 향한 ‘탐욕’으로 변질되고 만다.

우리가 탐욕적 투기를 경계하다 보면,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 차라리 일을 대충 하거나 재능을 썩혀서 일부러 돈을 적게 버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또 다른 논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성경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어리석고 게으른 태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한다(골 3:23). 내가 일을 잘해서, 혹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한 ‘청지기적 탁월함’의 결과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기독교인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격려하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며,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라(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는 유명한 경제 원칙을 제시했다. 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이자 실력이라는 뜻이다. 진짜 분별력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벌어들인 재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하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금욕적인 삶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며, 정직하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연료하신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일이나, 열심히 일한 영혼과 육체를 위해 휴식과 여행을 선택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향유하는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믿음의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이라 가르치고(딤후 5:8),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전 2:24)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이웃을 향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채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안락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탐욕적 사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감사함으로 가족과 나누고, 다음 사명을 위해 건강하게 안식하는 ‘거룩한 누림’은 청지기에게 허락된 마땅한 권리이자 축복이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늘귀의 영성은 가난 자체를 찬양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가족과 함께 감사히 누릴 줄 아는 ‘자유함’이며, 동시에 재물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과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주권의 고백’인 것이다(계속).

“성경이 말하는 바늘귀의 영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가족과 함께 감사히 누릴 줄 아는 ‘자유함’이며, 동시에 재물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과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주권의 고백’이다.”

지켜내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실력이다.

둘째, ‘이웃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적극적 사명 때문이다. 우리가 자산을 정당하게 증식해야 하는 공의로운 목적은 ‘사명적 부’와 맞닿아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선향 영향력을 끼치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다. 자본의 선향 선용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명적 태도다.

다만,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세상의 부자가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지론이나 신기복주의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크기로 가치를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오만이며,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렘돈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눅 21:1~4)’과 정반대되는 생각이다. 투자해야 하는 성경적인 본질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원의 크기가 어떠하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지혜롭게 경영해서 선향 열매를 맺는

것다는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통로’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족하며 땀 흘려 살아가는 삶도 귀하고,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경영해서 열매를 맺는 삶도 귀하다. 핵심은 투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던 내 마음을 맘몬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부자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경고와 마주해야 한다.

“...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24).

이 말씀은 많이 버는 성실함과 탁월함 자체를 죄악시키는 게 아니다. 이 경고의 본질은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재물이 내 영혼의 주인 자리를 찬탈하기가 너무나 쉽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다. 부유함이 축복이 되려면, 그 부유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철저히 양도해야 한다. 진짜 분별력은 ‘내가

크리스천의 건강한 생활

예수님은 종합병원 의사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3대 사역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치유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마 14:14), 치유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요 11:4).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를 하셨는데, 4복음서에서 질병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만 20회가 넘는다. 특히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는 각각 3회와 6회 치유사역이 기술되어 있다. 치유된 질환의 종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현대 종합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아우르는 ‘전과 전문의’였다. 안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등 오늘날 의료체제로 구분하면 11개 이상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치유사역을 행하셨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안과 진료는 실로암 연못(요 9:7)의 맹인과 바디메오(막 10:52)를 포함해 네 차례나 기록되어 있다.(마 9:30, 막 8:25)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던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고(요 5:8), 안식일에는 오그라든 손을 펴게 하셨으며(마 12:13), 이방 지역 베레아에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을 온전

하게 회복시키셨다(눅 13:13). 또한 가버나움에서는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막 2:11)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마 8:13)을 고치셨고, 변화산 아래에서는 간질 걸린 아이를 회복(막 9:27)시키시는 신경과 진료를 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 “죽지 않고 잠든 자”라고 말씀하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누 7:15)을 살리셨고, 회당장 아이로의 열두 살 된 딸에게는 “달리다쿰, 일어나거라”라고 외치시며 잠을 깨우셨다(막 5:42).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요 11:43)라고

내과 의사로서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마 8:15), 베레아에서는 복부에 물이 찬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눅 14:4). 또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막 5:29) 산부인과 의사이셨으며,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귀먹은 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며 듣고 말하게 하신 이비인후과 의사이셨다(막 7:35).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사역은 성형외과 의사에 비유할 수 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다. 의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하신다. 기독교 무료병원인 다일천사 병원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를 사명으로 삼으며 치유자는 하나님이라고 천명(闡明)한다.

반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기도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 의료선교사는 “선교지에서는 기도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닌 선교사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이어 가신다.

의사들은 예수님 치유사역의 동역자다. 성경의 많은 분량이 치유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설교 말씀에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지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의사 윤리로서 희생, 봉사,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히포크라테스선서도 중요하지만, 의

사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동참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환자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사역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의사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한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의사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동참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환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기억하고, 의사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외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러한 사역은 마취과 의사와도 같았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병환자(막 1:42)와 사마리아의 나병환자 10명(눅 17:14)을 치유하신 피부과 의사이기도 하셨다. 또한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사람(막 1:26)과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막 5:15)을 회복시키셨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자신의 딸을 식탁 밑에서 부스리기 먹는 개로 비유한 수로 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막 7:30)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하는 정신과 의사 역할을 하셨다.

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제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다(요 18:10). 예수님은 그 잘린 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눅 22:51). 또한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갈 때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셨는데(요 4:51), 이는 오늘날 원격진료를 떠올리게 한다. 더 나아가 이방 지역인 갈릴리 서북쪽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요단강 동편 베레아까지 두루 다니시며 순회 진료도 하셨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의사보다 바쁘게 사역하신 ‘일당백 의사’였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

정주호의 Holy Body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의지의 문제일까? 의지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심은 하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의지와 행동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바로 마음이다.

우리 안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 잘되지 않을 것 같은 걱정,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 이것은 단지 운동과 체중감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부, 직장, 관계, 건강, 신앙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붙잡는다.

불안은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상처와 경험, 미래에 대한 염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흔들린다. 같은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현실보다 해석이 불안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된 불안이 결국 몸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다. 걱정이 많아지면 어깨가 올라간다. 목은 굳어지고, 숨은 불규칙해지고 짧아지게 된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는 걱정이 꼬리를 물기 시작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운동을 권한다.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몸은 회

않으신다. 삶 전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영에서 혼을 지나 육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회복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꾼다고 믿는다. 맞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육에서 혼을 지나 영으로도 일하신다.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움직이고, 깊게 호흡하고, 운동하며 몸이 회복되면 놀랍게도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이 회복되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복되기 시작한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 혼, 육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 삼 1:2).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지

신앙생활에도 힘을 얻게 된다. 영적인 문제처럼 보였는데 시작은 몸이었던 일들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몸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만져 주셨고, 안아주셨다. 몸을 통해

마음을 만지셨고, 마음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의 회복은 언제나 삶의 가장 실제적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상처 입은 몸, 지친 마음, 무너진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만지시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일 수 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영, 혼, 육이 건강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건강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
(중종로공동체, 재활과학박사, 한동대 겸임교수)

목사 안수 소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목회자”



길한솔 목사
(여호수아청년부)

저는 21살 때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두드리셨고, 결국 여러 사건과 사람을 통해 부르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24살에 부르심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주셨던 마음은 ‘목회자로 살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목회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12월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사랑과 말씀 전하는 목회자”



박성훈 목사
(허브대학부)

“평생토록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 전 목사 안수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고백과 조언을 들으며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세움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겸손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청지기적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깁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제 능력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사역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아직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롭게 빚어져 가는 목회자”



박성원 목사
(Pole2대학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성원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은 기쁨보다 두려움이고, 감격보다 책임감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루 아침에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어가는 길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먼저 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저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성도님들의 삶 곁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큰 성과보다, 진실한 사랑과 꾸준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목회 여정이 제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기대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매일 새롭게 빚어져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6월 27일까지 ‘2026 차세대 어드벤처’

‘2026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교사 강습회가 6월 27일(토) 마무리된다. 지난 5월 30일(토) 시작한 이번 강습회는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수 1:7)가 주제다. 기도회와 주제 강의, 찬양, 교재 강습 등을 하고 있다.

해외 비전교회 교사 강습회는 6월

18일(목)까지, 마지막 4차 교사 강습회는 6월 27일(토) 제주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1차 교사 강습회에는 교사 487여명, 2차 교사 강습회에는 교사 535여명이 참가했다.

문의: 02-3215-3521

/ 남현영 기자

FA 25기 청년 선교사 모집

7월 6일 서류 마감, 7월 18일과 25일 면접

FA(Frontier Agency movement) 25기 대학청년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1년 이상)이면서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인 세례교인이다. 35세 이하 미혼(90년생 8월 이후 출생)이어야 하고,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FA 25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7월 6일(월)까지 이메일(fa@tim

.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두란노국제선교회 홈페이지(tim.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FA 25기 단기선교사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토) 또는 25일(토) 면접을 한다. 최종합격자는 8월 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합숙 훈련을 하고, 9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현장사역을 한다.

문의: 070-4464-8103(8105)

‘Love & Marriage’ 2기 모집

6월 20일~7월 4일 매주 토 오후 2시

‘Love & Marriage’ 2기 Public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국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14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미혼 남녀 각 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2만 원.

Love & Marriage는 성경적 가치

관 안에서 건강한 만남과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남녀가 자신을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행가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가 후원한다. 문의: (형제)010-4928-0707, (자매)010-3340-7039

누리사랑, 윤형주
장로 초청 찬양예배

서빙고온누리교회 누리사랑이 지난 6월 7일(일) 사랑홀에서 윤형주 장로 초청 찬양예배를 드렸다. 누리사랑 소속 성도 등 7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찬양예배에서 윤형주 장로(서초B공동체)는 간증과 더불어 찬양 ‘죄짐맡은 우리구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맘이 낙심되며’ 등을 선보였다.

김영미 성도(누리사랑)는 “윤형주 장로님의 따뜻한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서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결단과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포천하랑센터
봉사자 모집

포천하랑센터에서 봉사자를 찾고 있다. 대상은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봉사자와 차세대 예배를 섬길 전문 사역자다.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31-544-9236)로 신청하면 된다.

포천하랑센터는 14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외국인 학생과 어린이, 이주민 가정 등을 섬기는 공동체다. 한국어 강좌와 비자, 면접 강의 등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 사역도 한다.

문의: 031-544-9236

CGN 풍당, 목회 미디어 포럼 개최

대전·충청 지역 목회자 150여 명 참석

CGN 풍당이 지난 6월 2일(화)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AI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맞춤 전략’을 주제로 ‘CGN 풍당 목회 미디어 포럼’ 개최했다. 대전·충청 지역 목회자 150여명 참석했다.

‘CGN 풍당 목회 미디어 포럼’ 1부에서는 성종근 담임목사(문창교회) 대표기도, 전진국 장로(CGN 대표) 환영사 및 CGN 사역 소개, 이재훈 위임목사(CGN 이사장) ‘교회, 선교의 촉매제: Movement인가 Monument인가’ (마 2:18) 주제 강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CGN 임영광 풍당제작본부장 CGN 풍당 소개, 박군오 목사(구노리더십

연구소 소장) ‘AI, 목회에 바로 들어오다’ 주제 강의, 질의응답 등을 했다.

서정식 목사(예수사랑교회)는 “AI를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실천적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서 “CGN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사역적 자원이 지역 교회에 더욱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CGN 풍당은 하반기 경남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 사역 실무자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AI와 미디어 도구 실습 과정도 진행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한국어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토요일 토픽반, 주중반 모집

안산M센터 소속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이주민과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 토요일 토픽반 및 주중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한국어교실 토요일 토픽반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주중반은 상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 유경험자 또는 한

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다.

봉사는 토요일 토픽반 7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주중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중에서 하루를 고르면 된다.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onnurimile@gmail.com)로 하면 된다. 문의: 031-8077-9110, 010-2259-8575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함께하는 이웃,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인천 함박웃음, ‘고려인 초청 잔치’ 개최



인천 함박웃음이 개최한 ‘고려인 초청 잔치’.

인천온누리교회 고려인 한국어 교 육사업팀 ‘함박웃음’이 지난 6월 6 일(토) ‘고려인 초청 잔치’를 개최했 다. ‘함께하는 이웃, 더 가까워지는 우 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고려인 200여 명, 인천온누리교회

성도, 함박웃음 교사와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체험 부스, 2부 나 눘의 잔치, 3부 문화 공연으로 진행 됐다. 1부에서는 한글 퀴즈, 전통부 채 만들기, 인생네컷 등 모두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부에

서는 한국 음식과 고려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했 다. 3부에서는 블레싱, 태권도 시범, 고려인 아동 스피치, 간증, 설교, 해 금&가야금 합주 등이 이어졌다.

텐 엘레나 씨(고려인)는 “고려인들 을 위해 따뜻하고 감동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신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님 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딜라 씨 (고려인)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아 이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김종완 장로(함박웃음 담당)는 “함 박웃음 사역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며 “고 려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이주하는 ‘복음의 이주민’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2026년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2026 온누리 공동체 상반기 종강 택온누리교회까지 공동체별로 정해 예배를 드린다. 6월 9일(화) 강남A 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 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5일(일) 평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서 빙 고			
6월 18일(목)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6월 19일(금)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19일(금)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6월 19일(금)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6월 19일(금)	동대문중앙	한동홀	오후 6시
6월 20일(토)	김포	비전홀	오후 4시
6월 20일(토)	강서	양지비전빌리지	오전 10시
6월 23일(화)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3일(화)	성북	한동홀	오후 6시
6월 23일(화)	서대문	비전홀	오후 6시
6월 23일(화)	여의도	정곡빌딩	오후 8시
6월 24일(수)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4일(수)	노원	한동홀	오후 6시
6월 25일(목)	관악금천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5일(목)	찬양사역	한동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동작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이수	한동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용산	시온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특별한초대	순형홀	오후 5시
6월 26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오후 6시
6월 27일(토)	일산파주	비전센터	오후 6시
6월 28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오후 5시
6월 30일(화)	이촌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30일(화)	강촌	한동홀	오후 6시
7월 1일(수)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2일(목)	성동광진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3일(금)	중종로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3일(금)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7월 4일(토)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양 재			
6월 14일(일)	온사랑	도곡 기쁨홀	오후 1시
6월 16일(화)	서초A	화평홀	오후 7시
6월 16일(화)	강남C	온유홀	오후 7시
6월 18일(목)	양재A	화평홀	오후 7시 30분
6월 18일(목)	분당A	드림홀	오후 7시
6월 19일(금)	도곡	화평홀	오후 8시
6월 19일(금)	서초B	드림홀	오후 7시 20분
6월 20일(토)	과천의왕	화평홀	오후 5시
6월 20일(토)	송파B	드림홀	오후 5시
6월 25일(목)	강남B	화평홀	오후 6시
6월 25일(목)	서초C	드림홀	오후 7시
6월 26일(금)	온소망	드림홀	오후 6시 30분
6월 27일(토)	양재B	드림홀	오후 6시
6월 27일(토)	강남E	도곡 기쁨홀	오후 4시
6월 30일(화)	송파A	드림홀	오후 6시 30분
7월 4일(토)	경기A	안산M센터	오전 11시
7월 4일(토)	온민음	양지 Acts29빌리지	오전 10시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캠 퍼 스			
6월 26일(금)	부천 믿음	본당	오후 8시
6월 20일(토)	부천 소망	다락방별 진행	-
-	부천 희락	다락방별 진행	-
-	부천 화평	다락방별 진행	-
6월 27일(토)	수원 동누리	기흥 ICT밸리 C동	오후 5시
6월 19일(금)	수원 서누리	기흥 ICT밸리 C동	오후 8시
6월 25일(목)	수원 남누리	기흥 ICT밸리 C동	오후 8시
6월 26일(금)	수원 북누리	기흥 ICT밸리 C동	오후 8시
6월 26일(금)	대전 동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19일(금)	대전 서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6일(금)	대전 남누리	비전홀	오후 7시 30분
6월 26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4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오후 7시 30분
7월 5일(일)	평택 연합	본당	오후 2시 30분
6월 26일(금)	인천 온유	본당	오후 8시
6월 26일(금)	인천 사랑	소망홀	오후 8시
6월 26일(금)	인천 희락	기쁨홀	오후 7시 30분
6월 27일(토)	인천 충성	본당	오후 5시
7월 3일(금)	인천 화평	본당	오후 8시
6월 26일(금)	강동 동서울A	본당	오후 8시
6월 26일(금)	강동 동서울B	사랑홀	오후 8시
6월 25일(목)	강동 동서울C	본당	오후 8시
6월 28일(일)	양지 동누리	김사무엘홀	오후 2시 30분
6월 28일(일)	양지 서누리	시안홀	오후 2시
7월 2일(목)	영종 동누리	백향목홀	오후 7시 30분
7월 3일(금)	영종 서누리	백향목홀	오후 7시 30분
6월 27일(토)	제주 연합	본당	오후 7시
6월 26일(금)	서산 연합	본당	오후 7시

서빙고 권사회, 장례사역 위한 새 차량 마련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가 장례 사역을 위한 새 차량을 마련했다. 서빙고 권사회가 지난 4월 한 달 동 안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15인승 승 합차를 샀다. 2014년 장례버스를 마 련한 이후 만 12년 만의 차량 교체 다. 새 차량은 지난 5월 16일(토) 강 서공동체 천국환송예배 사역에서 첫 운행을 했다.

차량 교체 모금은 지난 4월 권사 월례회를 계기로 시작됐다. 공동체 별 단체 및 개인 헌금이 한 달 만에 총 7,732만 원이 모였다. 교회의 지 원 없이 권사들의 성금만으로 차량 구입비 전액을 충당했다. 조호영 목사(서빙고 권사회 담당) 는 “선배 권사님들의 숭고한 섬김 과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 새롭게

마련된 차량을 타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전하 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길 바 람다”고 축복했다.

온누리교회 권사회는 지난 2009 년 창립했다. 30개 공동체, 5개 권역 으로 세부 조직을 갖추고 장례사역 을 중심으로 섬김을 이어오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서빙고 일대일 동반자 수료자

수료예배: 6월 21일(일) 서빙고 3부 예배 / 장소: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대상: 4월 8일~6월 7일 사이에 완료 보고된 성도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 가정사역 전은영 이연희 지정민 임현섭	■ 서대문 구민희 류예경 박자현 오수아 정지훈 권준규	김희정 엄승현	■ 영등포구로 최 정 한명순	■ 중국어예배 JIN SHENAI JIANG YAN	〈대학 청년〉 ■ 길 강정아 김수현	김준상 심재욱 김준영 윤성용 김지선 김은희 김지애 최민희 김채현 이주영 김희재 윤문자 노태준 황진영 맹의정 김래경 문수지 김성연 박세봄 전경환 박지숙 김은숙 서민석 김문환 송승현 양호석 송호윤 이승철 신민철 윤석진 신은영 박주연 신아람 최제하 안도영 최문원 양희원 백윤주 오현경 정인경 유 현 김상욱 유혜리 김현아 이건규 이우성 이선영 김소연 이소영 김정숙 이영원 정미애 이정문 이나엘 이지혜 김선홍 이진향 김정은 임예림 정희선 임정섭 김용덕
■ 강서 윤세영 한주호 이혜란 정연희	■ 서빙고 이한희 최재영	■ 온누리미션 정수아 유영순 HUO LEHEANG PHUONG SOKLOM	■ 영등포구로 최 정 한명순	■ 중종로 서인호 김성현 이순희 장은자	■ 요셉 최윤미 김혜정	장보미 이지연 장석인 강은택 장하나 김수정 전정은 김미진 주하은 라명희 지현영 구자현 진 민 장서영 진주희 오은숙 한민정 오영채 홍민정 조경미 홍지민 김현영 황다을 박연호
■ 고양은평 김수정 김익순 박미숙 오선영 양경태 양환기	■ 성동광진 권유현 김선민 김형보 정연준 도신혜 박진희 유예은 나주현 전한중 이병민 최영호 박수진 LI CHENGNYU 강숙영	■ 용산 김대호 김태희 김현주 백주경 박푸른 소미현 여도현 강희선 이진환 정세옥 하정환 정 욱 황숙희 최경희	■ 창양사역 변성미 이승아 황윤미 이혜숙	■ 한강 국서현 조미정 윤성민 김희석 이세영 김주영	■ 하늘 김미영 양정실 김민제 김광직 배성민 이상준 송윤민 이재훈 이예진 신한서 이현정 조연선 임서윤 황다경	■ W 국예송 이은주 권민혁 김소태 김지윤 최현주 박지윤 박미연 안세영 박유선 유수정 오윤주 정 윤 조유리 지소민 박소희
■ 김포 곽홍석 조현준 이주영 이영심	■ 성북 김병보 김민애 김현정 권순자 홍정민 김영신 황인숙 박명화	■ 이수 신윤옥 김향임 양귀순 김화숙	■ 남대문로 임진선 유정윤	■ 동대문중앙 김보람 박진선 문진옥 전 진	■ 신용산 민서윤 강숙정 이인성 최종범 하은정 송애련	〈청소년 일대일〉 ■ 하랑센터 고은아 김하진 부가유 김 항 유지영 유지영
■ 동작 박형봉 방진석	■ 양천 김성용 이상민 조인선 권성옥	■ 일산파주 권명수 장영배 명기섭 박효정 홍승원 유창곤	■ 마포 강자연 이주연 김경섭 박재용 박학철 윤재준 이제니 송정휘	■ 여의도	■ CHPlus 최지수 이부경	■ Pole2 강유진 유영윤 심수민 장서운
■ 남대문로 임진선 유정윤	■ 성북 김병보 김민애 김현정 권순자 홍정민 김영신 황인숙 박명화	■ 이수 신윤옥 김향임 양귀순 김화숙	■ 남대문로 임진선 유정윤	■ 동대문중앙 김보람 박진선 문진옥 전 진	■ 신용산 민서윤 강숙정 이인성 최종범 하은정 송애련	■ 여의도
■ 동작 박형봉 방진석	■ 양천 김성용 이상민 조인선 권성옥	■ 일산파주 권명수 장영배 명기섭 박효정 홍승원 유창곤	■ 마포 강자연 이주연 김경섭 박재용 박학철 윤재준 이제니 송정휘	■ 여의도	■ CHPlus 최지수 이부경	■ Pole2 강유진 유영윤 심수민 장서운
■ 남대문로 임진선 유정윤	■ 성북 김병보 김민애 김현정 권순자 홍정민 김영신 황인숙 박명화	■ 이수 신윤옥 김향임 양귀순 김화숙	■ 남대문로 임진선 유정윤	■ 동대문중앙 김보람 박진선 문진옥 전 진	■ 신용산 민서윤 강숙정 이인성 최종범 하은정 송애련	■ 여의도

서빙고 일대일 양육자 수료자

■ 김영순 장로반 강주연 김동혁 김민수 김민희	김선빈 김소정 김영광 김용주 김은경	김지은 남궁희 박선주 박혜진	손범준 송설호 안준상 유현정 윤은정	이근원 이상목 이선아 이선화 이예담	이준호 이지현 이희정 임다빈 장취하	조성주 황인영
---------------------------------------	---------------------------------	--------------------------	---------------------------------	---------------------------------	---------------------------------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 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장로칼럼

‘북향화’(北向花)를 아십니까?

임현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지난 4월, 종묘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남아 산책할 겸 종묘에 입장했다. 한 무리의 관람객이 목련나무 앞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해설사는 목련꽃이 필 때 봉우리가 북쪽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北向花)’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잃지 않는 목련의 성질이 새삼 경이로웠다. 봄이 왔음을 알리며 불과 2~3주 동안 봉우리로 땀 흘렸다가 꽃을 피워 내는 목련을 바라보면서, 70년 넘도록 북쪽에 부모와 형제를 두고 온 탈북민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짧은 개화 순간에도 한결같이 북녘을 향하는 꽃처럼, 고향 땅을 다시 밟기를 학수고 대하는 그들은 일 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북녘을 바라보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린다. 그들은 북향화 같은 북향민(北嚮民)들이다.

그 마음에 응답하고 싶었다. 2010년부터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 모임과 함께 매월 하나원 미용 봉사를 시작했다. 가양동 한터공동체에는 매월 주일예배 식사를 준비해 갔다. 신림동에 있는 탈북민 대안 학교에도 매월 점심과 반찬을 준비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작은 섬김이 쌓여 남양주온누리교회 탈북민 사역의 기반을 다졌다.

그때 만난 탈북민들과 호칭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일반적인 호칭은 ‘새터민’ 이었는데, “그러면 한터민도 있느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다. 고향을 떠나 온 지 오래된 분들을 ‘실향민’이라 부르듯, 북쪽이 고향인 분들을 ‘북향민’으로 부르면 어

떻겠냐고 제안했더니, 모두 좋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호칭과 함께 북향민이라는 호칭도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호칭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2024년부터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이날이 사회통합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땅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통일의 마중물이다. 이미 작은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통일의 현장이요, 살아 있는 통일교육이다. 이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긴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2,500~3,000여 개 예배당이 있었고, 평양에만 250여 개의 예배당이 있었다고 한다. 복음의 씨앗이 이미 그 땅에 깊이 뿌려져 있음을 기억하며, 두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되듯,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국제 정세가 북을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70여 년 동안 남과 북을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북향민들은 언제가 고향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을 간절히 꿈꾼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피 흘려 국가와 민족을 지킨 순국선열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땅에 와 있는 북향화 같은 북향민들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어떨까?

권사칼럼

슬픔의 자리로 가는 차를 타고

신혜정 권사
(서빙고 권사회장)

2009년 2월 10일,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가 첫 월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석 교역자였던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권사들이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며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로 서야 한다는 간절한 비전을 품고 ‘서빙고 권사회’를 창립하셨다. 이전에는 권사들이 주로 개인의 영성과 소속 사역팀에서만 헌신했는데, 이재훈 위임목사님은 ‘권사회’라는 체계적인 틀을 새롭게 구축하기를 바라셨다. 특히 장례 같이 가장 어렵고 슬픈 현장에서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셨다. 이에 따라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는 30개 공동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체제를 갖추고, 장례 사역을 중심으로 섬김의 뜻을 올렸다.

권사회 1기 선배 권사님들은 전용 버스 하나 없이 기꺼이 개인 차량을 동원해 슬픔의 현장을 찾아가셨다. SNS 같은 연락 수단도 없던 시절, 일일이 전화를 돌려 봉사자를 모집하셨다. 때로는 지방까지 내려가 장례를 섬기고,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도 오직 유족들을 위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내셨다. 그 눈물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선배님들의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 권사회 2기가 바자회에서 마련한 3,9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다. 교회의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권사회 3기에 이르러 마침내 2014년 첫 장례 버스를 샀다. 그 버스는 만 12년 동안 슬픔을 당

한 유족들 곁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서빙고 권사회의 발이 되어준 차량이 많이 노후화됐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와 뜻을 모아 새로운 15인승 승합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권사월례회에서 선배 권사님들의 눈물겨운 헌신 영상이 상영되자, 차량 교체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자발적인 후원이 물밀듯 이어졌다. 어떤 권사님은 1만 원짜리 지폐 50장을 직접 봉투에 담아 오셨고, 어떤 분들은 대표 권사의 두 손을 꼭 잡으시며 귀한 헌금을 건넸다. 가족의 천국 환송예배에서 보였던 권사회의 섬김에 감사로 전하는 마음, 개인 사정으로 권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미안함, 후배 권사들을 향한 격려 등 각자의 마음이 헌금에 담겼다. 1만 원, 2만 원씩 정성을 보태주신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한 달 만에 7,732만 원이 모였다. 교회의 별도 지원 없이 오직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만으로 차량 구입비 전액을 마련했다. 그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5월 16일, 강서공동체가 새 차량 첫 탑승자로 이름을 올리며 천국환송예배 사역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강서공동체에서 전해 온 “운전자를 포함해 15명 정원을 가득 채워 다녀올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평안했다”는 소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사랑하는 후배 권사님들과 선배 권사님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늘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새 차량과 함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주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권사회는 새로 산 차량을 타고 더 많은 슬픔의 자리를 찾아가길 것이다. 권사회의 발길이 닿는 모든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성은일 목사
(춘천세순교회)

누구에게나 서툰고 어색했던 시절이 있다. 나에게는 2018년, 파견전도사로 차세대 사역을 감당하던 그때 그랬다. 내가 사역하던 시기에는 ‘부교역자’는 마치 ‘보험왕’처럼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이 많았다.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내향적인 성향이었던 나는 먼저 성도님들께 다가가고, 말은 부서 아이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학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신앙상담을 해주는 일이 참 어려웠다. 그러나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만큼 내향적인 나를 깨뜨려야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쏟아 사역하는 일은 늘 쉽지 않았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왜 그렇게밖에 설교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반복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편안해졌고, 준비한 설교 원고를 넘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상담해 주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그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부서 사역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갈 즈음, 새로운 고민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나 차세대 사역에 머물 수는 없다는 현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와 목양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고민은 차세대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처럼 점점 깊어졌다.

어느 목사에게나 미안한 교회가 존재한다

나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두렵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일단 그 상황으로 나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 성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목회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마침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온누리교회 준전임교역자로 부임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캠퍼스 준전임전도사로 부임한 이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곁에서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전임 사역을 감당하는 부목사가 되었다.

오래전 본격적으로 목회 현장에 뛰어들며 경험했던 성장의 시간을 나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처음 장년 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섰을 때도 그랬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수없이 수정하고 연습했던 원고가 막상 강대에 오르자 백지장처럼 느껴지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 백지 위 글씨가 다시 보이니까

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병아리 전도사 시절부터 나를 기다려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던 설교조차 인내하며 들어 주셨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떠오른다. 그래서 내게는 온누리교회에서 성장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성도님들에 대한 미안함이 늘 남아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주셨고, 서툰기만 했던 나를 기도로 세워주셨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받은 사랑과 기도의 빛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늦었지만 이 지면을 빌려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온누리교회 서산캠퍼스 성도님들이 생각한다. 언제나 아들처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아주 그립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대상: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애틀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근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피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714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참가 신청 QR코드



2026. 7. 17 금
오후 4:00~8:30

2026. 7. 18 토
오후 1:30~8:00

잠실학생체육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17일(금)

세션1(16:00-18:00)

환영·이인호 더사랑의교회
말씀·이기용 신길교회
기도·안광복 상당교회, 이해영 성민교회
찬양·신길교회

세션2(18:30-20:30)

환영·유기성 위지엠
말씀·이인호 더사랑의교회
기도·김도훈 신림동산교회, 김형석 필그림교회
찬양·더사랑의교회

18일(토)

세션3(13:30-15:20)

환영·김다위 선한목자교회
말씀·문대원 대구동신교회
기도·이요한 수원순복음교회, 류성룡 홀어진화평교회
찬양·아이자야61

세션4(15:40-17:20)

말씀·이재훈 온누리교회
기도·이지훈 대구범어교회, 남경우 GMTC
찬양·온누리교회

세션5(18:00-20:00)

환영·이재훈 온누리교회
말씀·이정규 시광교회
기도·이종필 세상의빛교회, 김경석 강서침례교회
찬양·아이자야61

714연합기도운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4,
1703호(가산아이비밸리)
TEL. 02-868-8425
E-MAIL. 714praymov@gmail.com

주최 **714연합기도운동본부**

협력기관 **714praymov.org**